

지역 매 아리

김제 사랑의열매 봉사단

‘행복꾸러미’ 전달

김제시 사랑의열매봉사단(단장 김용환)은 28일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의식 확산을 위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 430여 세대에게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담긴 ‘행복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복꾸러미’ 물품은 사랑의열매 봉사단원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읍면동 맞춤형복지 담당자들이 기준중위소득 80%이내의 저소득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김용환 봉사단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직접 만나 행복꾸러미를 나누면서 나눔 수록 커지는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랑의열매 봉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도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저소득층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사는 김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화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2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과 책임 연구원인 서재복 교수로부터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각 분야 시민 교육 현장에 있는 관련 실과 및 평생교육 관계자로부터 지역 학습환경과 요구도 분석, 평생교육 참여 실태 전수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향후 중장기적 평생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비전수립, 주요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자문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저출산, 인구고령화 등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나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적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해법을 평생교육에서 찾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기조 설정, 비전수립, 학습의 일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김제시 시민 및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학습요구조사, 평생교육기관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포적집단면접)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와일드푸드축제 D-30

군, 축제 성공 다짐 행사 개최

주민 위생교육·포차메뉴 시식

완주와일드푸드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성공을 다짐하는 D-30일 행사가 열렸다.

완주군은 28일 제9회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성공기원을 위한 D-30일 행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스 운영자 주민 100여명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와일드푸드축제에서 음식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주민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축제의 슬로건인 ‘오감만족, 완주에서 FUNFUN하게~’라는 콘셉트에 맞게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참여자 모두가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성공 결의를 다졌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 소개될 흥시와플, 생강식혜, 단호박 음료 등 건강한 먹거리가 가득한 포차메뉴 시

식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들 음식들은 지난 26일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음식들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와일드푸드축제의 성공 동력은 참여자 분들의 개인의 노력, 정직함의 성과다”며 “축제기간 위생과 서비스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으며, 다양한 음식 콘텐츠를 보유한 축제로 명성이 자자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허전 부시장 “책임감을 갖고 실적 향상에 총력”

김제시, 20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허전 부시장 주재로 실과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18개부서 49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2019년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7월말 기준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제시는 28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점검을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물가 안정관리’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보건소 급원클리닉 운영’ 등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더불어 대시민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총 5개 분야에서 90개의 시군지표를 가지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김제시는 향후 워크숍, 추진상황 월례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허전 부시장은 “합동평가는 우리시 행정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실적 향상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감염병 예방 총력

완주군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군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예방승관이 유년시절부터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이뤄졌다. 눈높이에 맞는 각종 동영상 자료와 손을 씻은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없어졌는지 뷰박스로 직접 확인해보는 체험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돋구웠다.

심해경 완주군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의 기본수칙인 손 씻기와 기침예절이 생활습관으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씻고 익히고 끓이기만 잘해 감염병을 예방 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 예방행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추후에는 의료기관, 산업체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황산면 지사협-복지기동대 독거노인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무상 설치

김제시 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류인갑)와 복지기동대(대장 윤충근)는 28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으로 독거노인 3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원을 받은 독거노인 박모 할머니(82세)는 “가스 밸브 잠그는 걸 자주 깜빡해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런 편리한 제품을 설치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밖에 나갈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황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중 하나인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사업’으로 지사협 위원들과 관내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복지기동대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지원을 받은 30가구를 포함하여 올해 79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강갑구 황산면장은 “지역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두 단체가 뜻을 모아 봉사활동을 펼쳐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최근 늘고 있는 독거노인가구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전국 21개 시·군 산림조합 및 지역본부 실무자 30여명이 지난 27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방문했다.

전국산림조합, 완주군 벤치마킹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서 비즈니스모델 발굴

전국 시군 산림조합, 지역본부 실무자들이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를 찾았다.

소 산림에너지 활용 중양난방 공간으로, 2016년 우드칩을 사용한 친환경 운수난방·급탕으로 개선해 속박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산림바이오매스 산업관련 홍보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완주군은 전국 21개 시·군 산림조합 및 지역본부 실무자 30여명이 지난 27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방문해 산림형 에너지자립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최유식 산림복지과장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중 버려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저탄소 산림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완주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오는 2020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설비를 도입해 지역분산형 에너지센터를 조성하는 2단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도 계획 중이다. 사업추진시 온실가스의 획기적인 감축, 산림부산물 활용 증대, 마을단위 발전시설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가능성과 현장실무를 익혀 산림조합 중앙회 차원 신규 산림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전국 최초로 산림에너지분야에서 홍보시설을 조성하고 중앙공급식 우드칩보일러를 선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고산자연휴양림의 운영방식과 우드칩 파쇄, 건조 및 보일러 열공급 시설 등을 확인했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은 저탄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